

해외 업계 소식

아태 3분기 서버 매출 18% 감소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난 3분기 서버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정도 줄어든 13억달러에 그쳤다고 IDC(<http://www.idc.com>)가 지난 11월 21일 밝혔다.

이와관련, IDC는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서버 구입을 미룸에 따라 아태지역의 3분기 서버 매출이 작년동기의 16억달러보다 3억달러 적은 13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총 출하량도 작년 3분기보다 4% 정도 줄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본을 제외한 아태지역 12개 국가가 모두 고전한 가운데 오히려 중국과 태국은 큰 폭의 성장세를 달성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두 국가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통신 분야의 활발한 투자에 힘입어 각각 20%와 40%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이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DC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아태지역 연평균 서버 시장 성장률을 당초10%에서 8.6%로 이날 하향조정했다

UN, '정보통신기술 위원회' 출범

UN(<http://www.un.org>)이 선·후진국간 정보기술(IT)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한 '정보통신기술위원회(ICT: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ask force)'가 지난 11월 20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UN은 지난해 열린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제3세계에도 인터넷 등 IT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ICT(<http://www.unicttaskforce.org>)는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설립한 UN 산하 특별위원회로 UN개발계획(UNDP)을 비롯해 세계은행·국제전기통신연맹(ITU) 등 다양한 UN 기구들이 참여하고 있다.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은 이날 UN본부에 입주한 ICT 사무실을 방문, “IT가 제3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특히 후진국들의 보건 및 교육 환경을 개선시켜 가난과 질병을 퇴치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ICT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조스 마리아 휘게레 ICT 사무국장은 “앞으로 제3세계 국가 사람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콘텐츠 개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멘스 휴대폰 생산 제휴 모색

독일 지멘스가 휴대폰 생산에서의 제휴를 놓고 여러 업체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지멘스가 단독으로는 더 이상 휴대폰 사업을 전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지난 10월 소니와 함께 휴대폰 합작사를 출범시킨 에릭슨의 움직임과 같다

지멘스 이사회 의 정보통신 관련 임원인 볼케르 중크는 “이익을 내기 위해선 일정 규모의 판매가 요구되며 따라서 결국에는 노키아만이 다른 업체와 제휴하지 않고 이익을 올릴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현재 (지멘스는) 여러 휴대폰 생산업체와 제휴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애의 업계 소식

그는 또 최근 휴대폰 시장에서 지멘스의 점유율과 수익력 저하 등을 지적하면서 “독자적으로 수익력을 회복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의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지멘스는 점유율이 7.3%로 지난해 동기보다 1.4%포인트 하락하고 업계 순위도 삼성전자에 밀려 4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블케르 중크는 그러나 협력 대상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전에 제휴 협상을 벌인 적은 있으나 합작사의 지분·브랜드명 관련 의견 차이로 중단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업체와의 합작은 일반적으로 미국 업체와의 합작보다 오래가지만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지멘스는 휴대폰 업계 2위인 미국 모토로라와 제휴 교섭을 벌였으나 지금은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업계에는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지멘스는 PDA 제조업체와의 제휴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블케르 중크는 밝혔다.

美, 비디오게임기 없어서 못판다

경기 침체로 소비를 자제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자녀를 위한 비디오게임 구입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C넷이 투자자문기구와 시장조사 업체의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골드만삭스가 실시한 소매업체 대상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업체의 73%에서 X박스가 소진했고, 43%는 게임큐브를 모두 팔았다고 응답해 최근 출시된 신형 게임기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미 주요 도시의 49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X박스와 게임큐브간의 차이는 출하 시기 및 출하량의 차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시각으로 지난 11월 15일 선보인 X박스는 현재 30만대 정도, 3일 뒤인 18일 출시된 게임큐브는 70만대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조사에 응한 토이스 R 어스와 월 마트는 “X박스 물량은 모두 소진해 새 물량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하고 “게임큐브도 조금 남아 있으나 크리스마스 이전에 모두 팔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게임 타이틀 및 액세서리류의 판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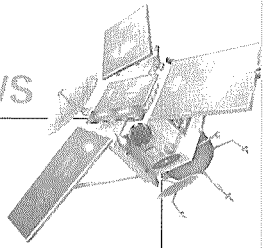
이에 따라 올해가 미 비디오게임 시장의 최대 호황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 시장조사 업체인 NPD펀드월드는 내다보고 있다.

이 회사는 미 테러 사태가 발생한 9월 게임기·게임 타이틀·액세서리를 모두 합한 미 비디오게임 판매가 12%나 증가했다고 밝히고, 특히 게임기 판매는 62%나 올랐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 분석가 리처드 오는 “9·11 등 일련의 사건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게임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고 말하고 “9·11 테러가 다른 산업에는 치명타를 입혔지만 오히려 게임 산업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형 게임기의 등장으로 더욱 시장이 활기를 띠 것”이라면서 “2001년이 미국 게임산업의 기록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게임시장의 활기로 특히 게임 타이틀 개발 업체의 주가가 대폭 상승하고 있다. 일렉트로닉아트의 경우 10월 이후 32%나 뛰었고, THQ와 액티비전은 31%와 44% 올랐다. 소기업인 액크레임엔터테인먼트는 90%나 상승했다.



NEC, 내년부터 듀얼모드 3G 휴대폰 생산

일본 최대의 휴대폰 생산업체인 NEC가 내년 초부터 세계 최초로 듀얼모드 차세대(3G)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키로 했다

NEC의 회장은 “현재 듀얼모드 단말기에 대한 시험작업을 진행중이며 내년초부터 허치슨 그룹에 대해 첫출하할 것”이라며 “세계 첫 출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듀얼모드 차세대 휴대폰은 3G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통화를 가능토록 하기 때문에 3G 이동통신 사업 성공에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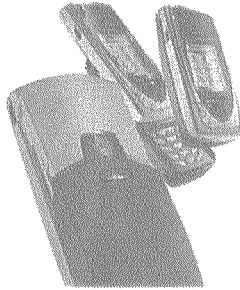
유럽의 통신사업자들은 듀얼모드가 생산되기 전에는 3G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일본의 NTT도코모는 지난달부터 세계 최초의 3G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단일모드로만 실시하고 있어 도쿄 이외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일본의 한 애널리스트는 “NEC의 휴대폰은 너무 큰데다 비디오 전송시 배터리가 20분밖에 버티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비안 OS’ 탑재 2.5세대폰 개발

노키아는 영국 심비안의 개인휴대단말기(PDA) 운용체계 ‘심비안 OS’를 탑재한 2.5세대 이동전화기 ‘노키아 7650’을 개발, 내년 초 출시한다.

이 제품은 일반패킷무선서비스(GPRS), HSCSD접속, 왓(WAP), 블루투스, 싱크ML, 적



외선 접속, 전자메일, MIDP 자바지원, 멀티미디어메시징(MMS) 등 다양한 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MMS로는 음악, 그래픽, 텍스트, 영상 콘텐츠를 1개 메시지에

삽입할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를 내장해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176×208 픽셀의 컬러디스플레이도 갖췄다.

통화시간은 2~4시간, 통화대기 시간은 90~230시간이며 무게는 154g.

밴드형 ‘버추얼 무선키보드’ 개발

스웨덴의 센스보드테크놀로지 AB는 무선입력 시스템 ‘버추얼 키보드’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밴드를 끼고 키보드를 치는 것처럼 손가락을 움직이면 밴드 안에 내장된 센서가 손의 움직임을 인식해 글자로 바뀌주며 마우스 기능까지 결합할 수 있다.

버추얼 키보드는 올해 컴텍스의 베스트 신기술상을 받았으며 개인휴대단말기(PDA), 휴대폰 등의 입력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